

깊은 바다에서 숙성한 샴페인의 맛은... 드라피에 이멀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6

해저 수심 50m 아래에서 발견된 난파선 한 척. 그 안에서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 전 만들어진 와인이 썩어있었다. 다들 한 번쯤은 접해봤을 기사다.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와인의 맛은 어땠을지, 아니 마실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다. 놀랍게도 발트해에서 발견된 19세기 샴페인 가운데 일부는 마실 수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기포도 남아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온도는 낮게 유지됐고, 와인을 상하게 하는 빛의 존재는 아예 없었다. 수입에 눌러 코르크 밀봉 상태로 완벽했다. 와인 보관에 이상적인 조건인 셈. 사고나 이벤트가 아닌 의도적으로 바닷속에서 와인을 숙성시켜 보자는 샴페인 하우스가 나타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샴페인 하우스 드라피에(Drappier)다.

드라피에는 프랑스 상파뉴에서도 꼬뜨 데 바(Cote des Bar) 지역에 자리잡은 샴페인 하우스다. 1808년 우르빌 마을에 정착한 이후 200년이 넘게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8세대까지 경영에 합류했다.



왼쪽부터 까르뜨 도르 브뤼트 NV, 까르뜨 도르 이멀전 NV, 로제 브뤼트 NV, 그라아드 상드레 2015, 밀레지 엑셉션 2019. 해저숙성 샴페인이 까르뜨 도르 이멀전이다. 보틀에도 바다 숙성에 따른 잔여물이 남아있다.

/안상미 기자



꼬뜨 데 바는 상파뉴의 남쪽 끝이다. 많이 아는 랑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상파뉴 중심부보다 부르고뉴 사블리와 가깝다.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토양 역시 사블리와 같이 조개껍질이 섞인 석회암인 키펬리안이다. 이 때문에 상파뉴 다른 곳과 미네랄 느낌의 결이 달라진다. 보통 분필같은 미네랄이라고 한다면 꼬뜨 데 바에서 만든 샴페인은 짭짤한 미네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저숙성의 맛을 비교해볼 차례다.

선택받은 와인은 드라피에의 대표 샴페인 '까르뜨 도르(Carte d'Or)'다. 드라피에 스타일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샴페인 하우스 드라피에의 브랜드 앰버서더인 주재민 소를리에가 까르뜨 도르 등 드라피에 샴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CSR

까르뜨 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카드란 말로 행운을 불러오는 샴페인이란 의미다.

'까르뜨 도르 브뤼트 NV'는 피노누아로 유명한 하우스답게 피노누아 80%에 샤르도네 15%, 그리고 뫼니에를 일부 섞었다. 숙성 기간은 3년이다.

코에서는 모과향과 함께 살짝 생강향이 스치고, 입 안에서는 피노누아의 골격과 풍성한 과실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숙성에 따른 효모 느낌은 절제됐고, 버블 질감은 부드럽다.

'까르뜨 도르 이멀전 NV'는 까르뜨 도르를 해저에서 3년을 더 숙성시켰다. 같은 샴페인인데 숙성 장소만 전통 셀러와 해

저로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산미다. 까르뜨 도르가 피노누아 중심으로 만든 샴페인의 둥근 산미라면 이멀전은 산도 자체가 더 높아 경쾌하고 여운도 길다.

드라피에 브랜드 앰버서더 주재민 소를리에에는 "숙성 환경이 샴페인의 질감과 표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를 보기 위한 드라피에의 실험"이라며 "일반 까르뜨 도르가 클래식한 피노누아 스타일이라면 해저숙성 까르뜨 도르는 더 차분한 질감, 신선함과 미네랄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저숙성은 빛과 온도 등 와인에 가해질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며 "파도에서 오는 반동으로 병 안에서 주스와 효모가 지속적으로 섞이면서 질감과 함께 복합미가 더해진다"고 덧붙였다.

숙성 방식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가격이다. 해저 숙성에 따른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이멀전이 기본 까르뜨 도르보다 비싸다.

드라피에는 숙취없는 샴페인으로도 알려져있다.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두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황을 거의 쓰지 않아서다. 드라피에 가문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이산화황에 예민했던 덕분이다. 이제 마음껏 마실 일만 남았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콘서트 12K로 본다

롯데시네마, VR 콘서트 단독상영 체험형 공간, 음향 특화관 활용 공식 굿즈 판매, 포토존 운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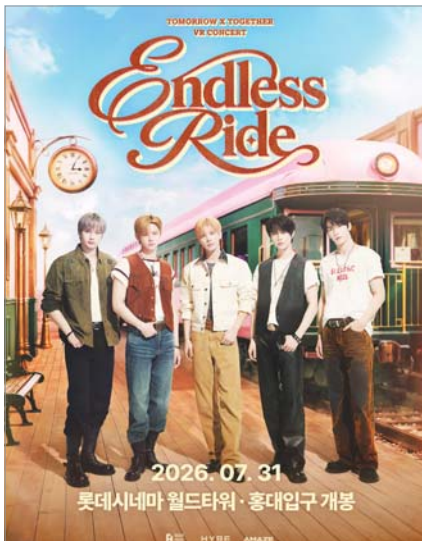
롯데시네마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세 번째 VR 콘서트를 단독 상영한다. 체험형 공간과 음향 특화관을 활용한 관람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31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VR 콘서트 : 엔드리스 라이드(TOMORROW X TOGETHER VR CONCERT : ENDLESS RIDE)'를 단독 개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12K 초고해상도 VR 기술을 적용한 콘서트 콘텐츠다. 상영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와 흥대입구에서 진행된다. 월드타워점에는 콘서트 콘셉트에 맞춘 체험 공간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흥대입구점에서는 음향 특화관인 '광음시네마'에서 상영한다. VR 콘텐츠를 광음시네마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시네마는 개봉을 기념해 스위트샵(매점)에서 공식 굿즈를 판매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차별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자



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교통철학자가 진단한 한국 도시의 고립

기후변화시대 그린 '철도 삼부작' 고립된 한국 철도와 해결책 제시

교통철학자 전현우가 유서 깊은 주요 도시에 위치한 '외톨이 역'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서적 '외톨이 역을 떠나며'를 출간했다.

민음사가 내놓은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외톨이 역'이 자동차 접근 위주로 대중교통이나 보행 공간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더 넓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립이 에너지 위기, 지역 쇠퇴,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탐구한 뒤 이를 위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저자는 교통 철학자로서 한국 도시의 현장 조사와 철학적 성찰을 결합하고 유럽 및 미국 철도 시스템과의 유사점도 도출한다.

예를 들어 포항, 경주, 광주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보행자 접근, 대중교통, 도심과의 단절 등으로 자동차 이동을 필수화하는 '외톨이 역' 현상을 비판한다. 또 이 동성의 미래, 철새와 비행기 간의 잠재적 충돌, 지역 주민과 세계 자본주의 간의 경쟁에 대한 질문도 제기한다.

특히 저자는 광주와 부산 간 직통 KTX 서비스의 부재와, 경상도와 전라도 간 이동에 필요한 불편한 경로에 대해 의문



외톨이 역을 떠나며

전현우 지음/512쪽/민음사

을 제기하면서 기차역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는 추세를 비판한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이 책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지역 쇠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기 시간표'에 기반한 국가 철도망 재편 계획을 제안한다.

이 책에는 사용 편의성을 위해 펼침 제본으로 제공되는 130개 이상의 지도와 인포그래픽, 전국 철도망에 대한 저자의 계획이 담긴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전현우의 이전 저서인 '메가시티 서울 철도'(2020)와 '납치된 도시에서 길 찾기'(2022)는 한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기후 변화 시대의 교통과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그의 '철도 삼부작' 중 마지막 권이다.

이강소 작가 50여년 작업세계 한자리에

롯데문화재단, 이강소 개인전 개최 회화, 조각, 영상 등 150여점 선봬

롯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뮤지엄은 이강소 개인전 '일어나고 사라지는(Emergence and Dissolution)'을 오는 8월 21일부터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실험미술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강소의 작업을 조망하는 자리다. 회화와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150여 점을 선보이며 작가의 작업 세계

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조각 작품 50여 점을 함께 전시해 회화 중심으로 알려진 작가의 작업 영역을 폭넓게 소개한다.

이강소는 1970년대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회화와 조각, 설치, 퍼포먼스,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해왔다. 작품을 결과물이 아닌 행위와 시간, 공간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이어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초기

작업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전시에 앞서 얼리버드 티켓도 판매한다. 슈퍼 얼리버드 티켓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성인 기준 1만 원(50% 할인)에 판매되며, 전시 개막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얼리버드 티켓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만2천 원(40% 할인)에 판매되며 전시 기간 내 관람이 가능하다.

티켓은 롯데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와 놀티켓, 카카오톡 예약하기·선물하기, 네이버 예약에서 예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美의회서 “중국, 유엔 평화유지활동 악용해 정보수집” 주장
▲미중러·아세안, 호르무즈 겨냥 ‘해협 통과권 보장’ 성명 추진

/사진 뉴시스

▲EU,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조건부 승인…“영화 배급 경쟁 우려 해소”
▲中, 대만해협서 이틀간 실탄사격 훈련…푸젠 연안 항행 통제

▲러, 영유권 분쟁지역 쿠릴열도서 대함미사일 훈련…“日 견제”
▲6개월째 교착…첼렌스키, 내주 방미 검토·美특사와